

넋 날 의 삶

載藥山人

— P君! 요사이의—그래 恒常愁心氣가 있어서
보이니? 무슨煩惱이있니? 아—니 무슨일이났구
나 그래! 나도 좀 아자부나! —

네들! 여름洪水에 풍겨서 나러가는 다—척어빠
진나 무중치에 그래도살나고먹을것을찾는공백이들
울못보았는가?

最大速力으로地球는돈다。—過去 몇萬年前부
러未來X까지—거기 고졸—하는개암이갓치
부러잇는人生을은 어지럼病에 걸니여 東西南北을
어림치지못한다。— 光化門通衢은길에醉정산처
럼— 投機的으로「애라지!」하면서 東이면東
西이던西하고말거름을노아 빙척—거러가는그
네들中에 或마른길노가는놈들이잇습가!? 複雜
한이世上에잇서서—迷惑과陷穽이만흔이社會에
잇서서—

헛된生을부종켜안고 참된生을흔들니는이가일
마나되는가? 이것이대관절부엇을爲하야그리하
는가 虛? 眞? 아—니 이것을宇宙의眞理—
哲學者들의恒常입에달닌 그眞理라고도할수잇습
가? 眞理—眞理—허々究竟모르는그네들의
노름—알도모르고뒤도모르는그네들이—

萬有引力이라는것은 잊어케그리씩々하게아맛
든지 危險한줄도모르고 제멋대로성당지리는그

險峻한人生의坂路에는 惡戰苦闘하는勇士들이
猛進하고잇다。 발간線을鮮明하게劃하면서—그
들의究竟目的은무엇인가。自由? 解放? 生?
死? 참! 遠大한抱負는만흔모양이다。그러나頂
上에올나가서 凱旋歌는누구가불을까? 아즉途

中에서저모양이니—螳螂한마리가 앞발을들고
汽車를防止하라고軌道우에섰다。오—이無謀의挑
戰이여!

그것은저—?.....그것은—저中學校時代
잇던여름날午後 學校가다가 下宿屋에도라와 冊
襟선체로 冊床에依支하야 한바탕 맛잇는날잠의
꿈이랍니다。그리고그꿈속에서 부러든한句節의노
래는 아즉까지라도 내記憶에남아잇습니다。그것
은이것이랍니다。

自働車는빨니간다。人力車도간다。가는사람은
는사람 제自己맛은모양이다。넓은市街는奔走한
그네들의所有物이다。이것이都會의現象이라할가
? 汽車소래는山川를늘나게한다。自働車뒤사람
은이에풍々나오는까—스법새는사람의코를찌른다
그래! 힘잇는文明이란놈은 약한自然을每日쟁을
쳐훔는것인가。아—가엾다弱한者여! 그러하고
내가弱者를同情한다는것은아니다。그러고또自然
을사랑하야「象牙의塔」에올은것도아니지만은...
.....허々—

○君! 오늘날은엇잔지 이新鮮한南山公園도滋
味업다。집으로도도라가자—

—허々 네가오늘날밧첫제? 밧도삿도업는말
을한참 혼자씨들어—

시내入를 訪다기로
源泉만치 訪단말가
이내마음 깨끗해도
어릴씨만 갓솔소나
아마도 이世上길은
塵埃인가 하노라 (完)

